

옛 전라선 기차길, 관광명소로 '각광'

전주한옥레일바이크 권병기 대표 "많은 관광객들에게 추억거리 제공하고"



전주에는 옛 전라선 기차길을 활용 해 명소가 된 전주한옥레일바이크 레저사업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옛 간이역의 느낌이 가득한 한옥레일바이크와 주변 이충호수공원까지 아름다움을 겸비한 곳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

권병기 전주한옥레일바이크 대표는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폐역이 되 불모지였던 이곳을 1300만 전주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7년여 레저사업을 펼쳐왔던 경험을 토대로 2014년 착공을 시작,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6년 건립했다."며, "전주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곳을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대표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어린이날에는 300여명의 무료탑승 기회를 제공하며 민간기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10%의 할인을 해준다.

또한, 전주 덕진구정 사마의 율타리 회원들에게는 유니폼 500만원 상당을



전주한옥레일바이크 권병기 대표

지원하고 전주시 엄마의 밥상에는 300여만원의 기부를하며 지역사람을 지원하고 전주시 엄마의 밥상에는 300여만원의 기부를하며 지역사람을

아중역은 폐역한 후 식당으로 운영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공원 조성과 함께 카페와 레일바이크 정거장으로

재 탄생됐다.

한옥레일바이크를 타면 경사가 없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낭만을 즐길 수 있으며 때때로 지나치는 열차를 바라볼수 있고 하차 후 역에서 10분정도 걸으면 이충호수 등 많은 볼거리를 만나 볼 수 있다.

수상산책로와 함께 호수 주변이 정비된 이충호수는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데이 트장소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하다.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전북도내 대표레일바이크로 14개 업체중 최초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증 획득했다.

한편, 권병기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전북의 다수의 단체 활동, 교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여수엑스포(스카이플라자), 관달열차 등 여러 체험 레저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예약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420 전화(063-273-7788)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장수 성암농농조합법인, 번암면에 100포 백미 기탁

장수군 성암농농조합법인(대표 이성철·시진)은 지난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백미 20kg 100포(500만원 상당)를 번암면에 기탁했다.

성암농농조합법인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저소득 이웃과 경로당에 백미와 돼지고기 등을 기탁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성철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주위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 쌀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정근 면장은 "기탁해 주신 이성철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을 어려움에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골고루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설 명절 떡국나눔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혜영)는 23일 설명절을 맞이해 경로당 떡국재료를 전달한 후 관내 요양기관인 뽕엘요양원으로 이동해 흥겨운 노래한마당 위문행사를 벌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새 위원 영입 및 설명절 떡국나눔행사, 2018년 결산보고 토의를 위해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전날 정성껏 포장한 떡국떡, 계란 등을 2개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떡국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경로당 전달을 마친 후 위원들은 관내 노인요양기관인 뽕엘요양원으로 이동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강사인 이은옥 씨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적적할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공연 및 위로행사를 진행하였다. 입소 중인 어르신 24명은 1시간여의 행사 중에 연신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문행사를 마친 후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끓인 떡국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해 첫 정기회의

김제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우근)는 위원 16명이 참여하여 2019년 1월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19년 내실있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그 운영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신바람나는 은빛 하루'라는 테마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진행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앞장서기로 결의하였다.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총 8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 청소년, 모부자, 다문화와 총망라하는 지역의 인적안정망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2019년에도 새로운 사업으로 현장에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 보고 복지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에 매진하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곳곳 어려운 이웃 위한 온정 이어가

남원지역에는 설 명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선물이 넘치고 있다. 신내면 상량마을의 가정정보원 연화사 여강(興康) 주지스님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달라며 백미 10kg들이 40포(110만원 어치)를 신내면사무소에 기부했다.

여강 스님은 "설 명절에 힘든 이웃들이 맛있는 밥 한끼라도 잘 차려드시면 좋겠고, 작은 정성이 좋은 뜻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여강 스님은 지난 2015년 신내면에 자리 잡은 뒤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행 남원지점에서도 관내 소외계층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김, 라면, 설탕 등 10종으로 구성된 생필품 꾸러미 100상자를 남원시에 기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관촌면 신유섭씨, 사랑의 백미 50포 기탁

임실군 관촌면새마을협의회회장 신유섭씨가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백미 50포(250만원 상당)를 관촌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신유섭씨는 2016년부터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이 직접 경작한 백미를 기탁해 오고 있다.

신씨는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 구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영화관 나들이 추진

구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3일 구림면 화암마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관 나들이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농한기를 맞아 시골마을 노령의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드리고자 마련했다. 영화상영에 필요한 비프로젝트와 스크린은 구림면이정당협의회(회장 권상수)와 구림면장(조태봉) 기탁금, 군정베스트 복지시상금을 모아 구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협의체는 구림면 마을 경로당 30곳을 찾아가 직접 비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설치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영화를 상영해 드릴 계획이다. 동절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순창=이영원 기자

고창경찰 청문실,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자 지원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에서는 고창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피해자상담경찰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신변보호 및 임시숙소 제공,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적·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피해자 전달 경찰관 김경이 순경은 "고창관내에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입은 경우 언어의 부담 없이 자국어로 소통하며 자신의 피해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폭력서비스 이용하여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들어서도 실제 상해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부부에 대해 피해자상담경찰관과 위기개입상담관이 심리치료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박정환 서장은 "외국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 발생 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없도록 각과에서 협업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다문화 가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회복과 일상복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경찰, 미귀가자 구조 유공 경찰관 표창 수여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3일 신속하고 면밀한 수색으로 나무 밑에 깔려 움직이지 못한 미귀가자를 발견해 구조한 여청수사팀 경위 이화석, 박재문에 대한 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나무를 베러 경운기를 타고 나간 아버지가 귀가치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으며, 늦은 밤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발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여청수사팀의 이화석 경위와 박재문 경위는 미귀가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불가능 상태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야산을 신속 면밀히 수색, 나무 밑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자를 발견해 신속히 남원의료원 및 가족에게 인계했다.

최홍범 서장은 "경찰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경찰, 설 명절 강력범죄 대비 합동 모의훈련

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23일 설 연휴를 맞이하여 강력범죄 총력대응 및 강·절도 예방을 통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진안을 소재 금은방에서 업주를 흥기로 위협하고 현금 강취하여 도주하는 상황설정으로, 지역경찰·형사 등이 초동조치 및 주요목지점 배치를 완료했다.

또한 acv통합관제센터는 알리미 등록 및 통과차량 도주로 전파, 112종합상황실에는 용의자 인상파와 전파 및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을 활용하는 등 각 기능 공조체제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논의·보완했다.

이연재 서장은 "설 명절 강력범죄 대비하여 선제적 예방활동과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출동 및 대응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